

아우가 먼저 숙적 일본 꺾었다

U-19 남자축구 8강서 3대2 승… 북한과 4강 대결

아우들이 먼저 본때를 보여줬다.

아시아 정상에 도전하는 19세 이하(U-19) 남자 축구대표팀이 일본을 꺾고 4강에 오르며 내년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 출전권까지 확보했다. 대표팀은 개최국 중국을 제압하며 역시 월드컵 출전권을 따낸 북한과 결승 진출을 다퉐다.

이광중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11일 오후(이하 한국시간) 중국 산동성 쪽보의 린즈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0 아시아축구연맹(AFC) U-19 선수권대회 8강전에서 일본에 3-2 역전승을 거뒀다. 이날 승리로 한국은 대회 4강에 올라 통산 12번째 우승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갔고, 내년 콜롬비아에서

열릴 FIFA U-20 월드컵 출전권도 획득했다. 한국은 2003년부터 5회 연속 FIFA U-20 월드컵에 출전한다.

2승1무, D조 2위로 8강에 오른 한국은 3전 전승으로 C조 1위를 차지한 일본을 맞아 지동원(전남)-정승용(FC서울) 투톱을 내세워 골 사냥에 나섰다.

그러나 전반 14분 페널티지역 내 오른쪽에서 이부스키의 강력한 오른발슛이 터져 선제골을 내주고 나서 전반 30분에는 주장 장현수(연세대)의 반칙으로 페널티킥을 허용 골 사냥에 나섰다.

하지만 한국은 대회 최다 우승팀이다운 자력이 있었다. 추가골을 내준 뒤 바로 2분 만

에 정승용이 페널티지역 정면에서 헤딩으로 떨어뜨려 준 공을 김경중(고려대)이 쇄도하며 오른발로 차 넣어 추격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전반 45분에는 이기제(동국대)의 코너킥 때 공격에 가담한 수비수 황도연(전남)이 동점골을 뽑았다. 황도연은 헤딩슛이 일본 수비수 맞고 나오자 재차 달려들어 원발로 차 넣었다.

주간 시간이 흐르면서 전반 47분 아크 오른쪽에서 얻은 프리킥 기회에서 정승용이 원발로 찬 공을 일본 골키퍼 나카무라 하야토가 잡지 못하면서 역전이 됐다.

한국은 후반 들어서도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어렵게 잡은 리드를 끌까지 지켜냈다. 한편 B조 2위 북한은 A조 1위 중국과 격돌에서 후반 초반 두 골을 물어넣어 2-0으로 이겨 결국 4강에서 남북대결을 성사시켰다.

/연합뉴스

49세 중년의 서영애씨 끝없는 도전이 아름답다

세계 태권도선수권 품새 5연패

한국 태권도 품새의 간판스타 서영애(49·전주비전대·사진)가 세계선수권대회에서 5회 연속 우승을 이뤘다.

서영애는 10일 오후(한국시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의 유니버설 스포츠팔리스 우즈베키스탄체육관에서 막을 내린 제5회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여자 마스터 1부(만 41~50세)부에서 7-48점을 얻어 금메달을 막았다. 2006년 제1회 대회 여자 단체 2부에서 정상에 올랐던 서영애는 제2회 대회부터는 마스터 1부에서 출전해 즐곧 우승을 놓치지 않으면서 대회 5연패를 달성했다.

서영애는 지난달 국가대표선발전에서 맞수 오경란(청지회)을 0.09점 차이로 제치고 태극마크를 달아 결국 5년 연속 세계 최강의 자리를 지켰다.

서영애는 “인생은 도전이다. 나의 철학이다. 몸이 허락하는 데



까지 대회에 출전하고 싶다. 계속 기록을 깨고 싶다”고 대회 6연패 욕심도 드러냈다.

대회 마지막 날 서영애와 함께 남녀 시니어 2부(만 31~40세)의 박문경(정호)과 이숙경(청지회)은 금메달을 보태면서 한국은 총 금메달 9개와 은메달 2개로 5회 연속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출전 선수 11명 모두 메달을 따 종주국의 자존심을 지켰다.

베트남(금 2개, 은 1개, 동메달 1개)과 터키(금 2개, 동메달 4개)가 뒤를 이었다.

/연합뉴스

형들도 오늘밤 반드시 꺾는다

한·일전 통산 73번째 맞대결

‘캡틴’ 박지성 무릎 통증 결장

조광래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12일 오후 8시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일본과 친선경기를 치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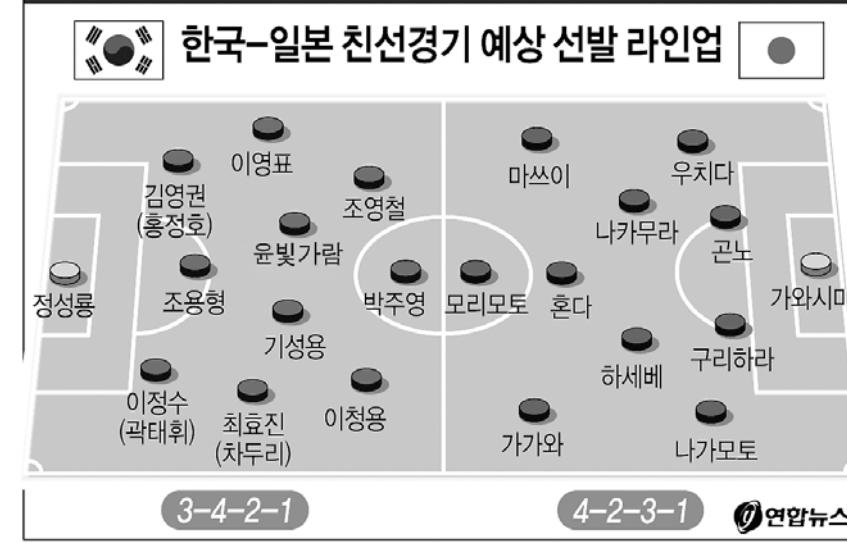
이번 한·일전은 통산 73번째다. 1954년 3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스위스 월드컵 예선 경기(한국 5-1승)로 시작된 한·일전 역사에서 한국은 40승 20무 12패로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2007년 7월 아시안컵 4-2위전 승부차기 승리(공식 기록은 무승부)부터는 최근 4경기 연속 무패행진(2승2무) 중이다.

특히 올해는 2월 동아시아연맹선수권대회(3-1승), 5월 친선경기(2-0승) 등 두 차례나 일본 원정경기에서 기분 좋은 승리를 챙겼다.

조광래 감독은 사령탑 취임 이후 지난 두 경기에서 3-4-2-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전술을 구사했는데 이번에도 큰 틀의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하지만, 중원을 지휘해 줄 것으로 믿었던 주장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 오른쪽 무릎 통증으로 결장이 불가피해 어떤 전략을 구사할지 관심이다.

박주영(모나코)이 최전방에 서고, 조영철(니키타)과 이청용(볼턴)이 좌·우측면을 받친다. 중앙 미드필더들은 박지성을 대신해 ‘젊은 피’ 윤빛가람(경남)이 기성용(셀틱)과 함께 호흡을 맞출 예정이다.

조광래 감독은 미드필드 싸움에서 수적 우위를 점하고 일본의 처진 스트라이커 혼다 다이스케(토론토)가 선발 출전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한국과 일본의 축구대표팀 평가전을 하루 앞둔 11일 오후 파주NFC(대표팀트레이닝센터)에서 진행된 일본 축구대표팀의 최종훈련에서 선수들이 미니게임을 하며 전술을 가다듬고 있다. /연합뉴스

대표 “한국 잡겠다”

조광래 감독은 “박지성이 예전에 수술을 받았던 오른쪽 무릎 통증을 호소하고 있어, 박지성을 2선 미드필더로 내세우지 못하게 됐다”고 “윤빛가람이 박지성과 비교하면 부족하지만 축구에 대한 이해력이 풍부해 좋은 플레이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윙백의 왼쪽 자리는 배데랑 이영표(알힐랄) 차지하고, 오른쪽은 최효진(서울)과 차두리(셀틱)의 주전 경쟁이 치열하다. 스리백 수비라인은 국외파로만 훈련할 때는 왼쪽부터 김영권(FC도쿄)-조용형(알 라이언)-이정수(파주)로 꾸렸다.

모리모토가 최전방, 가가와가 왼쪽 측면 공격을 이끈다. 아르헨티나를 겨냥한 오른쪽 공격수 오카자키 신지는 하비지를 다쳐 뛰지 못하고 대신 마쓰이 다이스케(토론토)가 윙백으로 끌어온다. /연합뉴스

조광래 감독은 “박지성이 예전에 수술을 받았던 오른쪽 무릎 통증을 호소하고 있어, 박지성을 2선 미드필더로 내세우지 못하게 됐다”고 “윤빛가람이 박지성과 비교하면 부족하지만 축구에 대한 이해력이 풍부해 좋은 플레이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일본은 파리과이와 경기에서 결승골을 넣은 가와와 신지(도르트문트), 콜롬비아와 평가전에서 혼자 두 골을 넣은 모리모토 다카유기(카타니아) 등을 앞세워 설욕을 노린다.

모리모토가 최전방, 가가와가 왼쪽 측면 공격을 이끈다. 아르헨티나를 겨냥한 오른쪽 공격수 오카자키 신지는 하비지를 다쳐 뛰지 못하고 대신 마쓰이 다이스케(토론토)가 윙백으로 끌어온다. /연합뉴스



女복싱 4대통합챔프 김주희

든든한 후원업체 만나다

음식업체 참이맛 홍보대사 위촉

비인기 종목 선수라는 설움을 딛고 세계 여자프로복싱 4대 기구 통합 챔피언에 오른 국내 간판 여자 복싱 김주희(24·거인체육관)가 든든한 지원군을 만났다.

정문호 거인체육관장은 11일 “(참이) 맛이 김주희를 후원하기로 결정하면서 흥보대사로 위촉했다”라며 “위축 행사는 11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 참이맛 본사에서 열렸다”라고 전했다.

프랜차이즈 음식업체인 (주)참이맛은 매

달 후원금을 김주희에게 지원하며 동시에 방어전 등에도 일정 금액을 후원할 계획이다. 김주희는 참이맛의 흥보대사 자격으로 오는 15일부터 4일 동안 독도를 방문해 사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주희는 지난 9월 세계복싱연맹(WBF) 리아트플라이어 챔피언이 되면서 여자국제 복싱협회(WIBA), 여자국제복싱연맹(WIBF), 세계복싱연합(GBU) 등 4대 기구 통합 챔피언이 됐다. 하지만 지난 3~4년 동안에는 후원사가 없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 2월에는 후원사가 나서지 않아 예정된 두 차례 통합 챔피언 결정전이 취소되기도 했다. /연합뉴스

10월 19일(화)

10월 20일(수)

10월 21일(목)

10월 22일(금)

10월 23일(토)

10월 24일(일)

10월 25일(월)

10월 26일(화)

10월 27일(수)

10월 28일(목)

10월 29일(금)

10월 30일(토)

10월 31일(일)

10월 32일(월)

10월 33일(화)

10월 34일(수)

10월 35일(목)

10월 36일(금)

10월 37일(토)

10월 38일(일)

10월 39일(월)

10월 40일(화)

10월 41일(수)

10월 42일(목)

10월 43일(금)

10월 44일(토)

10월 45일(일)

10월 46일(월)

10월 47일(화)

10월 48일(수)

10월 49일(목)

10월 50일(금)

10월 51일(토)

10월 52일(일)

10월 53일(월)

10월 54일(화)

10월 55일(수)

10월 56일(목)

10월 57일(금)

10월 58일(토)

10월 59일(일)

10월 60일(월)

10월 61일(화)

10월 62일(수)

10월 63일(목)

10월 64일(금)

10월 65일(토)

10월 66일(일)

10월 67일(월)

10월 68일(화)

10월 69일(수)

10월 70일